



통권 89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9. 3. 13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 41년 장기수 우용각 등 2·25 석방자 기자회견 열려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사로 41년 장기수 우용각 씨 등 양심수 39명이 풀려났다.

이 가운데 우용각 씨 등 초장기수들과 준법서약없이 석방된 강응주, 조상록 씨 그리고 2.25 석방자 30여명은 3월 2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양심수 석방과 인권개선을 위해 애써온 나라인박의 인권, 종교, 사회단체 등과 언론인들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시면조치에서 풀려나지 못한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 : 임종진 <월간 말>

2·25 사면조치의 의미와 문제점

정부는 2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대화와 경제회생 동참기회 이념갈등해소 등의 명분으로 모두 8,812명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조치를 결행했다. 양심수와 관련해선 41년째 갇혀있는 우용각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 19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민족해방에 국전선) 사건의 장창호씨 등 20명이 가석방조치로 풀려났다. 또한 정병도(97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씨 등 1476명에 대한 특별사면(형선고 실효)과 특별복권, 통일혁명당 사건의 오병철 씨 등 170명에 대한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과 특별복권, 민족해방에국전선사건의 최호경씨를 무기형에서 20년으로 특별감형했고 전남대생 최석주 씨등 4명을 남은 형기의 1/2로 줄였으며 남민전 사건의 이해경씨등 1083명을 특별복권 조치했다.

이번 사면에서 민가협이 조사한 지난 1.15. 현재 302명의 구속양심수 가운데 13%인 39명만이 석방되는 실망스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전향 장기수양심수를 이처럼 한꺼번에 조건없이 석방한 일은 매우 획기적 조치로 그 역사적 의미와 함께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 정권이래 몇차례 비전향 장기수를 고령자(70살 이상, 30년 복역) 또는 병약자라는 이름으로 몇사람씩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예는 있었지만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 비전향장기수를 한꺼번에 석방조치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3.13과 8.15 사면이 턱없이 미흡했던 일과 국민의 정부 출범 뒤 지난 1.15.까지 703명이

나 되는 양심수를 구속하고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과 제도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등 전반적 인권후퇴 조짐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측면에서 인권개선 역할 뿐 아니라 50년 이어온 냉전구조를 허무는 실질적 가시적 조치로 그 의미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은 사면내용과 취지를 발표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까지 말하고 있어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하고 있듯이 고향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자유의 몸이 된 것은 분단과 외세가 강요했던 냉전과 분단을 허물고 민족적 대과제인 통일을 이뤄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처럼 비전향장기수가 조건없는 석방과 양심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사면·복권 조치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면의 전체 기조는 준법서약제가 양심수 석방의 걸림돌이 됨으로써 대통령 사면권도, 사면의 의미도 훼손시키면서 대부분의 양심수가 석방에서 제외된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다. 이제 그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자.

먼저 비전향장기수가 조건없는 석방조치에 19년과 15년씩 갇혀있는 손성모, 신광수 노인이 빠져 있는 점이다. 이들은 71세의 고령에다 고혈압, 위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병약자이기도 하며 다같이 북쪽에 가족을 두고 있다. 마치 훌륭한 서예작품에서 낙관을 찍지 않는 격이 되었다. 이들은 하루빨리,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로 준법서약제의 모순점이다. 준법서약

은 양심수 사면의 필수조건이라 했지만 30년 이상을 복역한 17명의 장기수와 조상록(78년구속·일본유학생)씨와 강용주(85년구속·구미유학생사건)씨가 준법서약 없이 석방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준법서약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국내외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준법서약이 석방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어떠한 법이든 제도가든 차별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신뢰성과 실효성을 옹당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을 하지 않았다하여 석방에서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교수와 민예전 사건의 최호경씨 등은 준법서약을 썼는데도 석방에서 제외시켜 마한 가지로 시행에서의 형평성을 깨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이 제도를 당장 철회하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결양심수를 사면대상에서 제외시킨 점과 정치적 이유로 쫓기고 있는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가 없었던 점이다. 사면에 대한 법무부의 보도자료에는 구정권시절 학생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조치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수를 해오면 관용을 베풀겠다고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고 있다. 비록 반민주악법이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실정법으로 인정한다 해도 이들이 쫓기고 있는(많은는 7년까지) 오랜시간은 그 혐의부분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사면에서 형선고 실효, 잔형집행면제,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조치는 혐의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판단 확정자체를 실효시키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결 양심

수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왜 이들에게만 제외된단 말인가. 이미 1988년 12월 21일, 노태우 정권에서는 미결, 기결을 가리지 않고 사면과 함께 조건없이 구속취소를 했고 수배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넷, 이번 사면조치에서는 김대중 정부하에서 구속된 양심수는 전부 사면조치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단병호씨 등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석방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10달여 동안 708명의 양심수가 양산되었고 이중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은 393명이다. 또한 이들중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로 구속된 사람이 95%에 달한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88년(104명), 93년(136명) 역대정권의 집권 초기 1년동안 발생했던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와 비교할 때도 더 심각한 국가보안법 남용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정권하 양심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현 정권하에서 발생한 양심수는 사면조치에서 모두 제외되었는데, 이는 대단히 권위적인 태도라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등 반민주 악법과 제도를 없애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야 한다.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쫓기고 있는 모든 정치수배자들을 조건없는 수배해제 조치를 촉구한다.

오늘, 그녀가 외롭지 않은 이유

이귀영 편집부

3.1절 대사면으로 감옥이 텅 텅 비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는 고통 속에 살아온 이들도 환한 웃음을 머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가 있다. 그리고 철창을 사이에 두고 그리움에 눈물짓는 그들의 가족들이 있다.



▲ 목요집회에 선 김혜정 님

에서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전 불행하지 않아요. 단란하고 행복했던 지난 시간이 늘 기억 속에 살아 있기 때문에 밝고 즐겁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낸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3년 6개월만 헤어져 있으면 된다는게, 앞으로 2년만 기다리면 된다는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범민련 전 사무처장 민경우 님(34)은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3년 6월형을 선고 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김혜정 님(34)과 아들 준홍(7)이는 2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강제된 이별, 그것은 분명 참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러나 김혜정 님과 준홍에게서는 그늘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심수의 가족'이라 불리기에는 너무 밝고 느긋하고 안정된 분위기, 싱싱한 활력, 이들에게도 분명 생이별의 고통은 남과 다르지 않을 터인데, 출소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런 마음도 있을텐데...

2년이나 더 기다리셔야 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가족의 입장

현재의 고통을 이길 만큼 행복한 기억이라... 대단한 잉꼬부부셨나 보군요.

글쎄요. 특별히 다정했다기보다는 늘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이였어요. 남편은 저의 수다떨기 대상이었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어떤 투정도 다 받아주고, 행복하고 단란한 기억이란 바로 그런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곁에 없어도 늘 대화를 나누는 것 같고, 또 편지에 수다를 떨기도 하구요.

혹시 준법서약서를 안 쓰신데 대한 원망은 없으세요?

이젠 남편의 결정이 옳다는 걸 잘 아니까 원망 같은 건 없어요. 사실 구속 당시에는 남편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 남편이 부산으로 이감된 뒤 비로소 가족이 헤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게 어떤 고통이구나 느꼈죠. 그리고 저보다 더 긴 세월을 헤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 나라인지 절절

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죄인도 아닌데 안기부로부터 협박을 받는 일까지 있었으니 더욱 그렇구요. 이렇게 제가 양심수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 국가보안법은 몸으로 부딪혀서 깨나야 하는 것이지 구호나 생각으로만 되는게 아니라는 남편의 생각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거지요.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는군요.

제가 남편이 하는 일을 무조건 찬성하거나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예요. 남편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따뜻하고 선한 심성의 소유자예요. 처음 만날 때부터 카운셀러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도 제겐 그런 존재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처지에 맞게 배려해 주기 때문에 후배들이 굉장히 따르고요. 남편은 무엇보다도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아집이 없었어요. 범민련 일도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이런 심성, 삶의 자세를 사랑해요.

가장의 역할까지 떠맡아야 하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으시죠?

남편이 구속되기 전에 한양대 근처에 호프집을 하나 차렸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전업주부로만 지내다가 밖에 나와 일을 해보니 돈을 버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번 뼈저리게 느끼죠. 하지만, 몸은 힘들어도 배우는 것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알지 못했던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우리 사회엔 인간적인 사람이 너무 많구나'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소위 학벌 없고 돈 없고 뻥 없는 사람들의 순수하고 고운 심성을 엿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남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도 제겐 큰 소득이에요. 제가 전업주부일때는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이 가장 참담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직접 사회활동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결코 나만 불행한 게 아니고, 나만 힘들게 하더라는 걸 알게 되니

까 준홍이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것도 견딜 만하구요.

준홍이가 아빠를 찾지는 않나요?

준홍이도 왜 아빠와 헤어져 지내야 하는지 이제는 어렵 뜻이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아빠 공부하러 갔다'고 했는데, 요즘엔 '아빠가 옛날에 학교 같은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에 있어.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가 빨리 오지'라고 말하곤 하거든요. 준홍이가 기 죽지 말라고 애써 숨기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고통은 고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이랑 같이 모임에 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다 있는데...' 그게 가장 가슴 아파요.

준홍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꼭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항상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아이에게 독립성도 길러줄 수 있겠다 싶어요. 준홍이에게도 자신의 인생이 있는거니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거죠.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니까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준홍이에게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과 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싶은 바람이에요.



▲ 준홍이는 아빠와 즐겁게 놀고 싶다.



남은 2년 동안 계획한 일이 있나요?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제게 '자신을 개발하며 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준홍이를 낳은 뒤 아이하고 집에만 있으니 마치 인생이 정지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 혼자서만 키워야 하죠?'라고 남편한테 시비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못했는데, 떨어져 지내다 보니 '남편도 준홍이도 각자의 인생이 있는건데, 그렇다면 내 인생은 뭐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네요. 내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엔 더 늦기 전에 진로를 바꿔 카운셀러 공부를 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바람이 있다면?

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 안 가는 일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 바랬던 적도 있구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렇게 요구한다면 남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동지적 결합은 되지 못한다 해도 서로가 선택한 삶을 소중히 여겨야죠. 남편에게 가장 큰 바람은 건강하게 있어 달라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담담하게 속마음을 보여주는 김혜정 님을 만나고 뒤돌아서는 내 마음은 차라리 무겁기조차 했다. 그 담담한 마음 속에 깊이 숨어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듯한 아린 그 무엇이 깊이 느껴져와 콧날이 시큰해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님 · 이회호 여사님!

저희와 같은 정치적인 박해자들의 처지를 말이나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이해하시는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맞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기쁨의 눈물

을 흘렸던 감동의 순간과 대통령께서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시던 장면은 저희들 마음속 깊은 한을 눈 녹이듯 풀어 내주었던 감동의 순간들이었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은 그전처럼 덤덤하게 마음이 얼어붙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작년 8.15를 앞두고 대서면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어느날 아침, 사상전향서 대신 준법서약서를 써야 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수들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한다는 것이 사상전향제도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의 남편과 더불어 많은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했습니다.

정말로 준법서약서를 써야할 수많은 죄를 지은 권력자들과 부정부패 사범들이 위풍당당하게 감옥문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정작 50년만의 정권교체를 목 마르게 기다리고 애써왔던 양심수들과 저희 가족들은 가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용서와 화해를 정치적인 신념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우리 양심수들에게는 화해의 손을 아끼시는 건가요.

부디 바라건대 99년 새해에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김혜정씨가 쓴 청와대에 보내는 편지 중)

부디 바라건대, 준홍이와 김혜정 님께 기쁜 일이 있기를, 이들 가족의 소박한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단의 감옥을 넘어 통일의 나라로

이혜정(25세·95년 한총련 대표로 방북, 3년6월형 받고 만기출소)



2월 25일 새벽 6시.

아직은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다.

새벽 잠을 서둘러 깨워 부지런히 집을 나선 민가협 어머니들과 먼저 풀려나온 장기수 선생님들, 젊은 후원회원들의 모습이 어둠 사이로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두들 상기된 표정으로 그 동안의 수고를 칭찬하며 버스에 몸을 싣는다. 부족한 잠을 메우느라 잠깐씩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버스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매번 대전교도소를 다녀올 때마다 선생님들을 뒤로하고 올라오는 것이 그토록 속상했는데 선생님들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그토록 아꼈는데...

이런저런 생각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바로 앞의 길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덕분에 서대전 톨게이트를 들어서면서부터 길을 헤매고 가던 길을 몇번 돌아 예정 시간보다 늦게 대전교도소 앞에 도착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린 이보다 더 암담한 안개속을 셀수

도 없이 헤쳐왔던가.

교도소 앞에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전지역 사람들, 각지에서 마중 온 사람들.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열지어 서있던 한총련 학생들. 노조위원장의 석방을 기다리던 만도기계 노동자들. 시간이 다가 올수록 표정이 상기 되던 민가협 어머니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이리저리 자리 경쟁을 벌이던 기자들.

그 가운데 이번 석방에서 제외된 '이화춘' 씨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부인과 하나, 두메, 미르. 연로하신 선생님들의 석방을 더없이 기뻐하고 안재구씨, 최호경씨가 이번 석방에서 제외된 것을 더 가슴 아파하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이화춘 씨 식구들. 양심을 지키기 위해 준법서약서를 쓰지않아 집으로 돌아올 수 없고 그래서 막내 미르의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아빠를 이해할 줄 아는 하나.

아빠가 준법서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을텐데...

어느덧 10시가 가까워지고 복잡하던 교도소 앞이 차분해졌다.

꽃다발을 든 어머니들의 움직임,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던 학생들의 목소리, 취재경쟁에 격앙되어 있던 기자들의 분주함이 잠시 잦아들었다. 42년째 감옥 살이 끝에 세상을 향해 첫발을 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함이다.

잠시 동안의 정적을 깨고 안개 걷힌 교도소 진입로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용각 선생님이지요?”

42년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얼굴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했던 이들. 양심을 저버릴 수 없어 술한 죽을 고비를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살아 온 이들.

박완규, 장병락, 김익진, 안영기, 최선묵, 그리고 우용각.

한분 한분 교도소 철문을 벗어날 때 마다 꽃다발을 안겨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 자식의 석방보다도 더 마음 졸이며 기다려 왔던 조장기수 석방. 수천 수만 번도 더 외쳤던 “42년 우용각을 비롯한 조장기수를 석방하라” 너무나 단단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반세기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가협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석방되어 기쁘기는 하지만 함께 동고동락하던 류락진, 이화춘 선생을 두고 나와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인권개선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고립무원의 세월을 지낸 사람답지 않게 차분하고 단아(?)하게 출소 소감을 밝히는 우용각 선생님.

“어머니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좀더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00선생, 살아서는 다시 못볼 줄 알았는데, 오래 살다보니 이런날도 있네” 먼저 석방

되어 동지들의 석방을 기다려왔던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재회에 눈시울이 절로 붉어지기도 한다.

“형님 대신에 감옥을 살게 해달라”며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형의 석방을 간청했던 김은완씨는 참다못해 형님 김은환 선생님의 무릎에 고개를 묻고 통곡하고 말았다.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나오는 이들이 어김없이 들르는 대전민가협 회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출한 환영모임을 마치고 다시 서울행 버스를 탔다. 그토록 소망하던 선생님들 모시고.

감옥 안에서 보낸 40년 세월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커다란 책보따리와 함께.

선생님들과 동승한 서울행 버스 안에서 우리는 40년 동안 꼭 참아왔던 분노와 설움과 답답함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었다. 그 빈자리에 지금도 감옥에 있는 양심수 석방을 대한 희망을 채워 넣으며 모두들 편안한 잠을 청하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 대상자 명단

1. 석방

우용각(71세 · 42년 구금) 최선묵(72세 · 38년 구금) 홍명기(71세 · 38년 구금) 안영기(71세 · 38년 구금) 장병락(66세 · 38년 구금) 양희철(66세 · 37년 구금) 이경찬(65세 · 35년 구금) 최수일(61세 · 35년 구금) 김동기(68세 · 34년 구금) 박완규(70세 · 33년 구금) 이공순(66세 · 33년 구금) 김익진(70세 · 31년 구금) 오형식(70세 · 31년 구금) 김은환(70세 · 31년 구금) 양정호(69세 · 31년 구금) 김창원(67세 · 31년 구금) 이재룡(56세 · 30년 구금) 조상록(일본유학관련 · 22년 구금) 강용주(구미유학생사건 · 15년 구금) 장창호(민애전사건) 이영석(전철연) 황성근(만도기계 노조위원장) 이호준(건국대) 이경호(고려대(서창) 설중호(단국대(천안) 구장주(동국대) 최언석 유충복(이상 명지대) 오재홍 박수기 김국한(이상 전남대) 이태환(전북대) 한충일 강성일(이상 조선대) 박치현 김병수(이상 한남대) 하영준 김소연(이상 한양대) 위성재(호남대)

2. 감형 <5명>

최호경(민애전사건. 20년으로 감형) 김승원(한양대) 김철용(안동대) 최석주(전남대)

그래, 다 여러분 덕택

조순덕(50세 · 민가협 회원 · 96년 경원대 총학생회장 어머니)

저는 25일 안동교도소에 갔습니다. 조상록 씨, 강용주씨 출소하는데, 그야말로 교도소 앞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분주하게 돌아 다니는 용주 어머니 모습, 또 그의 형제들. 세련되게 차려 입으시고 "우리 동생 상록이 나온다."며 환하게 미소를 띄우고 계신 조상록씨 누님. 그 누님의 아들 3형제. 그 모습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여기 저기서 "축하한다"고 하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 짓는 용주 어머니 말씀, "그래 다 여러분 덕택이지요" 하시더군요.

오늘의 그 '영광'을 다 '여러분 덕택'으로 돌리는 그 마음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평소에 신경이 곤두서 누가 말만 걸어도 서운해 하시던 조상록씨 누님, 그 날은 어느 누구 보다도 편안하고 인자하신 그 모습 또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급해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한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조하게 시계만 들여다 보는 두 가족. 드디어 '교도소' 안 쪽에서 많은 출소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맨 앞 쪽 조상록씨, 강용주씨, 처음 본 얼굴이지만 금방 알아 볼 수 있었어요.

집회 때마다 사진 들고 '조상록, 강용주 석방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슴 저리도록 눈물이 나오더군요. 조상록씨가 학사모 쓰고 있는 그 예쁜 사진(?)의 모습은 조금 비껴나 머리 희끗희끗한 중년 '아저씨'의 모습,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 22년 '삶'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는지. '시대의 아픔'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또,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출소 소감을

얘기하는데 용주 손이 마구 떨리더군요.

어린 '청년' 학생 때 들어가 '장년'이 되어 세상밖으로 나왔으니 감회가 새롭고 떨리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서승 선생님께서 용주를 끌어 안더니 그냥 우는게 아니라 선생님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얼굴을 비비며 소리내어 몸부림치며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차마 바라 볼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이 더 많이 오셔서 이 아름답고 슬프고, 가슴 아픈 모습들을 같이 느껴 봤으면 하는 생각 간절 했습니다. 다행히도 상록씨나 용주씨는 가족 품으로 돌아 갔지만 우용각 선생님을 비롯하여 다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 또 가슴 아픕니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더 진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조상록 선생님, 강용주씨, 모든 장기수 선생님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사시는 그날까지 절대 몸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45년, 41년, 22년, 14년이라 하지만 그 분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생각만 해도 죄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회장님, 임기란, 서경순 전회장님, 권오현 회장님, 밤, 낮 가리지 않고, 물질, 시간, 몸, 아끼지 않으며 석방운동 하시는 그 모습, 술한 밤을 새워 가면서 어려운 일을 척척해 나가는 사무실 총무, 간사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귀한 배움이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차라리 부끄럽습니다

고제현(31세 · 회원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사)

사실 광주로 떠나는 마음은 좀 무거웠다.

내가 세상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33년의 시간을 1평도 안 되는 공간에 갇혀 지내신 선생님, 청년의 몸으로 시작한 영어의 생활에 백발 노인이 되어 버리셨을 선생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요즘을 살아가는 나약한 스스로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무거워졌다.

24일 밤, 광주교도소로 함께 가기로 한 다른 선생님과 후원회원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내일 이면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는구나 실감했다. 광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보는 산과 나무와 하늘은 어느 때보는 것과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 선생님과 내가 같은 크기로 저 산과 나무와 하늘을 바라 볼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이 공간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2월 25일 아침, 광주교도소 앞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기 시작했고, 10시가 가까워지면서 나도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교도소 앞에서 처음으로 만나 뵈 양희철 선생님의 가족들을 보면서 30여년 동안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가슴 저리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도소 안쪽에서 쇠창살로 무장한 호송 버스가 신경질적으로 뱅뱅거리며 질주하듯 빠져 나왔고, 우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버스에 선생님이 타고 있었고 버스는 교도소 정문을 저만큼 벗어나 선생님들을 밀어내듯 내려놓았다. 이럴수가. 우리의 술렁거림은 분노로 바뀌었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우리는 여섯분의 선생님과 제대로 만날 수

있었다. 만형 같은 자상함이 풍기는 양희철 선생님. 머리카락은 33년 세월 뒤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청년 같은 기백이 느껴지는 김동기 선생님, 막내라고 수줍게 말씀하시는 이재룡 선생님. 그리고 30여 년 갇혀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아한 이경찬, 최수일, 이공순 선생님.

고맙다고, 여기 계신 분들의 투쟁과 노력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나는 차라리 고개 숙였다. 이토록 오랜 세월 선생님들을 감옥에 가둬둔 우리의 양심이 부끄럽기만 했다. 아니, 때늦은 석방에 뭐라 할 말이 없었다.

5.18묘지 참배 후 간단한 환영식, 점심식사까지, 출소하신 선생님들은 다른 누구보다 씩씩하고 건강해 보이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먼저 출소한 선생님들의 밝은 모습을 뵈는 일이었다. 감옥에 두고 온 동료들 생각에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선생님들, 서로 얼싸안은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30여 년만에 새롭게 만나는 요즘 세상이 낯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언제나처럼 푸르른 기상과 굽힘 없는 신념으로 우리들 곁에 남아주시기를 바란다. 1박 2일간의 광주행은 김동기 선생님과 편지를 나눈 지난 4년의 시간과 선생님의 33년 감옥생활을 만나는 긴 여행이었다.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를 면회하러 오가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변의숙(34세 · 92년 민애전 사건으로 구속, 98년 8 · 15 석방)

2월 25일 새벽 5시 30분, 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짙은 안개로 한 치 앞을 분가하기 어려웠다. 그 뿌우연 안개 속을 달리다보니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다. 바로 오늘 풀려나오시는 장기수 어른들이 기나긴 세월 처해 있었던 운명과 관련한 단상이다. 엄혹 했던 시절, 그 분들이 놓여 있던 상황은 마치 겹겹이 둘러 쌓인 안개 속을 걷는 것과 흡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우용각님의 말씀 중)', 그야말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도록 불안한 나날들이었을테니 말이다. 힘겨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낸 열 일곱 분이 마침내 오늘 철문을 열고 옥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오시는 것이다.

오랫동안 바라도 또 바라던 일이고, 늦어도 참 늦은 것이다. 사실이건만 웬지 아직도 현실감이 없고 불안하기조차 하다. 아마도 그간 몇 번이나 번복되곤 했던 '악몽'의 기억 때문이리라.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나오신단다. 내가 지금 그 역사의 현장인 전주교도소로 가는 것이다. 정겨운 산하를 달리고 달려 이윽고 전주 교도소에 도착하였다. 이른 시각이라 그런지 두리번거리며 서성이고 있자니,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호경씨의 부인, 황선희씨가 차에서 막 내리고 있었다. 인사를 하는데 보니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했다. 밤새 울었음이 분명하다. 법무부 당국의 약속대로 '준법서약서'를 쓴 남편이 석방되리라 철썩 같이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의 옷도 사고 이리저리한 준비를 하던 황선희씨는 남편이 석방되지 못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후로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 깊은 절망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난감하기만 했

다.

감옥에 남겨질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총혈된 눈으로 새벽길을 허위허위 달려온 그 사람이 안쓰럽고 가슴아파 견디기 힘들었다. 아들 민혁이가 병이 나서 몸이 쫄쫄 끓었다고 말하는 그이의 눈자위가 또 다시 붉어졌다. 최호경씨는 '민애전 사건'(소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7년째 복역중이다. 이번에 당국에서 석방조건으로 요구한 '준법서약서'를 썼으나 20년으로 감형됐을 뿐이다. 그 무슨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석방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미리 그렇게 결정해 놓고 그에 엇비슷하게나마 들어맞을 듯 싶은 이유를 꿰맞추는 것은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저런 상념으로 착잡한 중에 10시가 되자 한복 두루마기를 단정히 차려입은 김창원 선생님이 걸어 나오셨다. 다행히 건강해 보이셨다. 말씀하시는 것도 그다지 어눌하시지 않았다. 양심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전주교도소 앞에 모인 모든 이들의 얼굴이 모처럼 밝아 보였다.

간단한 환영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몇 대의 차에 나누어 '고백교회'로 갔다. 한상렬, 이강실 목사 부부가 목회하시는 교회이다. 우선 함께 자리한 청년, 학생들과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김창원 선생님의 소감도 들었다. 그 동안 관심가지고 도와준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피력하셨다. 이번에 함께 나오시지 못한 신광수, 손성모 선생님에 대한 죄스러움과 안타까운 마음도 오셨다. 자리를 옮겨 점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그 분들 생각으로 내내가 숨 한 켠이 무거웠다. 그 동안 고락을 함께 했던

소중한 동료들을 뒤에 남겨둔 채 홀로 밖으로 향하는 김창원 선생님의 발걸음 역시 무거우셨으리라.

20년 가까이 감옥살이 하신 70고령의 두 분을 이번 사면에서 왜 제외시켰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20여년의 장기징역이, 풀려나기에는 짧은 시간이란 말인가?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로 풀려난 17명 장기수부들의 입장과 다른 분들에게 말이다. 얼마를 더 살아야 석방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통일의 물꼬를 트고 민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모든 장기수를 석방하는 것은 물론 이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을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송환했으면 하

는 바람이 간절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창원 선생님이 앞으로 거처하실 대구로 떠나는 발걸음을 배웅한 뒤에 나는 일행과 같이 서울로 향했다. 안개 걷힌 산야는 한창 물이 오르는지 싱싱해 보였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물들이 뚜렷하고 생생했다. 아름다웠다. 나는 소망했다. 이 아름다운 길을 감옥의 가족이나 동료들 면회하기 위해서 오가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조국산하의 이름다움을 슬픔 없이, 기쁘고 정겨운 가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미래가 안개 걷힌 뒤의 태양처럼 밝고 그 햇살처럼 찬란하기를...

완전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싶네요

곽은경(대구 경북 양심수후원회 간사)

대구지역 어른들과 후원회 식구 30여명은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마음을 안고 대구교도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준법서약으로 인해 오늘 풀려날 이들보다 갇힌 이들이 더 많은 현실에 더없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30여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분단의 감옥에서 갇혀 있던 분들이 모두 풀려난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기쁨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따리를 들춰매고 교도소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그 사람들속에서 오형식, 홍명기 선생님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불안하게 옮겨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청년의 티를 벗은 듯한 젊디 젊은 오형식 선생님, 온통 백발이지만, 석방 마중 나온 사람들 앞에서 아이처럼 수줍어하시는 홍명기 선생님, 그 두 선생

님이 흰결을 하나하나에 얼굴에 머금은 표정에 청춘의 패기를 담고 있는 두분이 우리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단정한 몸짓과 말솜으로 한결같이 그동안 애써주신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고 한편으로는 당신들보다 더 먼저 풀려나야 할 젊은 학생들을 이야기 하며 안타까움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을 가뉘둔채 다시 굳게 닫혀버린 교도소 철문 앞에서 하는 환영식은 그래서 완전한 환영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들과 함께 눈물겨운 만남을 이룬 선생님들이 가족들과 서울로 떠나고 다시 교도소앞에 남은 우리들은 곧 완전한 환영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굳게 잡아보았습니다.

선생님들, 뵈고 싶네요. 건강하기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별빛으로 찾아오신 분들께

강용주 38세

1.

그리운 벗에게

밤이 거뿔거뿔하고 아직 어두운 어스름 새벽녘, 아파트를 나서 그네에 앉았습니다.

그네줄의 금속성 차가움이 가슴 깊이 밀려오더군요.

새벽하늘에 미처 잠들지 못한 별들을 올려다 봅니다.

십오척 담안의 독방에선 보고 싶어도 철창이 가로막혀 볼 수 없었던 새벽별들을 바라보며 마침내 제가 세상속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합니다. 문득 새벽별이 보고 싶어질 때면, 오늘처럼 아파트 문을 열고 놀이터로 내려와 밤하늘을 맘껏 올려다보며 그 별을 찾아낼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자유가 제게도 있음을 말이지요.

밤하늘을 바라보다 발을 굴러 그네를 탔습니다. 흔들리는 그네에 몸을 맡기고 있으려니 두 눈 속으로 새벽별 하나가 살포시 꼬리를 그리며 내려앉습니다. 14년

의 세월동안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워만 하고 있었던 별 하나가 출렁이며 일으키는 상념의 동심원! 어느새 그 동심원은 사람들의 얼굴로 바뀌더군요.

옥담과 철창이 가로막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지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저를 일으켜주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을 훔쳐주며 힘내라고 격려와 사랑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은하수가 되어 흐릅니다. '양심지킴이'의 고난의 나날동안 늘 희망과 힘의 원천이 되어주셨던 민가협 어머니들, 양심수후원회 회원들, 그리고 국내의 수많은 양심세력들이 새벽별이 되어 저와 더불어 있어서 행복했지요.

그네를 타고 흔들거리는 제 마음속에 별빛으로 찾아오신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이 고맙기만 합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나 이렇게 세상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2.

두발을 들고 그네를 타면서 별빛을 가슴에 담는 동안 어느새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들어 바라본 어스름 새벽 하늘엔 감옥에 남겨 두고온 벗들의 얼굴이 겹쳐옵니다. 저 멀리 천리밖 안동교도소에서도 이 새벽별이 보일런지요. 환영이는 이 새벽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병현이는 밥 잘먹고 건강할까요? 옹호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감옥에 두고온 벗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우리가 놀이터에서 새벽별을 자유롭게 맘껏 볼 수 있는 날은 언제가 될런지요.

벗이여!

나도 당신처럼 힘과 사랑의 새벽별이 되어 감옥의 벗들에게 쫓아가렵니다. 간혀있는 양심수들이 전원석방되고,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신새벽을 이루기 위해 무슨 힘을 더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네를 내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41년의 희망

고현희 (편집부)



◀ 41년만에 김옥문을 나온 우용각씨가 민가협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5일, TV 카메라에 비친 우용각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목요집회때 마다 보랏빛 수건의 어머니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서 보던 그림속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젠 처음 느끼는 경험이다.

언제던가, 95년 8월, 김선명 선생님과 안학섭 선생님 그리고 한장호 선생님이 출소하시던 날도 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뵈고 깜짝 놀라지 않았던가. 나는 반복된 나의 무지몽매함에 어이없는 실소를 보내며 한편으로는 진한 아픔을 그 때처럼 또 느꼈다.

사진.

장기수 선생님들에게는 그 흔한 사진 한 장 없는게 현실이다. 이젠 사진기도 구닥다리처럼 느껴져 캠코더가 나오고 더 발달된 기계들이 나오는 세상에, 30년 40년 이상을 갇혀 산 선생님들에게는 수십년의 기록이 삭제된 채, 제대로 된 엄지손

톱만한 증명사진 한 장 없는게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갇혀만 사신 선생님들의 얼굴을 알 길이 없는 우리는 피켓에 가상의 인물을 그려 넣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 그림을 보며 갇혀 있는 선생님들의 얼굴을 상상했던 것이다.

우용각 선생님(71세)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가는 날은 날씨가 유독 맑았다. 성큼 다가온 봄기운으로 외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만큼.

낙성대 만남의 집에도 봄기운이 완연했다. 꼬리를 정신없이 흔들거리면서 장난을 걸고 있는 '흰둥이' (만남의 집에서 키우고 있는 하얀 진돗개)를 쳐다보며, 마당에서 계신 이 종(88세) 선생님의 백발에 내려 앉은 따뜻한 봄햇볕은 눈부시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뛰어 노는, 오랫동안 만남이 집에 방문했다는, 후원회원 나명주님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한 폭의 풍경화처럼 평화로웠다.

양달과 응달.

그 평화로움의 가장 큰 배경은 양달이었으리라. 아직도 응달에서 싸우고 있는 풀려나지 못한 모든 양심수와 이 양달을 나눌수 있다면...

우용각 선생님은 옷을 두겹으로 입고도 또 잠바를 걸치고 있었다. 41년을 응달에서만 지내오셔서 인지 아니면 그 긴 세월을 봄없는 겨울로만 지내오신 탓에 좀체로 봄이 낯설어서인지 선생님의 차림은 봄차림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조용한 목소리와 침착한 태도로 긴 시간을 깨끗한 자세로 앉아 말씀을 하신다. 저러 오는 다리를 이리 저리 바꿔 앉는 기자의 모습이 민망할 정도로 선생님은 양반다리를 한 자세를 인터뷰 내내 풀지 않으셨다. 다른 선생님들처럼 우용각 선생님에게는 아마도 그 자세가 평생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취한 자세일 것이고, 그래서 마른 몸에 양반다리가 가장 편한 모양이었다.

우용각 선생님의 고향은 '약산'에 진달래가 많이 핀다는 평안북도 영변군 송화리이다.

우 선생님은 조부모님의 고향인 그 곳에서 1929년 우성련님과 오영숙님 사이에서 3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우성련님은 친구들과 합작회사 형태로 '대동강 운송 사업소'를 경영하고 있어 집안형편은 넉넉했다.

그러나 39년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사람들의 기업을 전시사업체제로 모두 전환시켜 압수하면서부터 집안이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회사를 일제에 빼앗긴 아버지는 일제에 대한 감정이 좋을리 없었고, 그 일과 관련해 형무소를 오고가는 일이 잦더니 끝내 해방을 앞둔 44년 형무

소에서 풀려 나와 얼마 있지 않아 장질부사에 걸려 영영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었다. 우 선생님의 아버님뿐만 아니라 같이 회사를 경영하던 친구분들 중에는 화병으로 세상을 버린 사람도 있었다.

"오랫만에 하는 얘기다 보니 생각도 빨리 나지가 않고 이거 영 깔깔하구만요." 고원무림의 독방에서 동지들과 사소한 대화마저 가로막던 간수들의 눈을 피해가며 감옥 벽을 두드리면서 의견을 나누던 주먹과 손가락이 '혀와 소리'를 대신하던 긴 침묵의 시간에서 풀려난지 고작 일주일만의 인터뷰인지라 선생님은 길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게 자연스럽지 못한 모양이었다.

선생님은 영변에 있는 심상소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 평양의 삼광 보통학교로 전학을 해 그곳에서 43년 졸업했다. 아버지가 평양에서 사업을 벌리셨기 때문이다.

졸업후 선생님은 평양 제2공업학교 기계과에 입학했다. 평양에는 두 개의 공업학교가 있었는데, 제1공업학교는 주로 일본인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제2공업학교가 조선인을 위한 학교였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명칭만 학생이지 전쟁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을 화학공장이나 병기 공장에 동원하는 날이 더 많았고 교육내용도 신통치가 않았습시다. 거기다 남포 비행장 건설장에서 조선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의 패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더이상 학교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시다."자퇴하고 있던 중 선생님은 '우리 조선말로 아무 말이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게 가장 좋던' 해방을 맞았다.

해방과 함께 새로운 단체와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임시정부는 학교를 세워 대대적으로 문맹퇴치 운동을 벌였으며 친일과 숙청작업도 강

력하게 벌어나갔다.

해방전까지의 침울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와 몸과 마음에 새 살이 붙기 시작하며 이제 막 열일곱살의 청년으로 성장하던 우 선생님의 모습은 아마 어딘지 닮은 꼴이 있었을 것 같다.

선생님은 신의주에 있는 공업전문학교 기계과에 입학했고 졸업후 46년 2월 간부 양성기관인 경제 연구소(과학 연구 아카데미의 전신) 정치경제과에 입학해 공부를 했다.

학업과 함께 선생님은 집안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겨울엔 절친한 친구들과 어울려 토끼가죽을 사다 모자를 만들어 내다 팔기도 하고 다른 계절엔 종이를 사다 노트를 만들어 파는 일 등을 하며 패기만만하며 지적인 청년기를 보냈다.

혈기왕성하던 청년기의 터널 중간쯤에서 선생

님은 전쟁을 맞았고, 당

시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랬던 것처럼

자연스레 인

민군에 지원

입대한다. 그

리고 전

쟁중이던 52년 고향이 같은 영변의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생님은 수산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다 58년 소환되어 조국통일을 앞당길 마음으로 남으로 내려오던 중 울릉도 근해에서 체포되었고, 체포되며 올라다 본 망망 동해바다 위를 가득 메우고 있던 하늘이 선생님이 41년간 그리워해야하는 마지막 바깥의 온 하늘이었다.

무기를 언도 받고 41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며 선생님이 볼 수 있는 하늘은 언제나 창살에 조각난 하늘이었고, 하늘만 갇힌 것이 아니라 세월도 갇힌 탓에 기억할 수 있는 아들의 모습은 정제된 채 네살배기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60년 4.19가 일어나면서는 한 5년 살면 나갈수 있으려나 생각했지만,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며 이제 30년 이상을 살거나 자칫하면 바깥구경 못하고 가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체포된 것은 인생의 실패중에서도 큰 실패를 한 것인데 더이상 실패를 해선 안되겠구나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안에 갇혀 있는 동안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단련도 더 해야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용각 선생님은 말이 없으신 편이고, 어조도 아주 부드럽다. 또 표현 하나마다 신중을 기한다.

선생님이 출소하고 난 후 2·25 석방자 기자회견장에서였다. 한 외신기자가 선생님께 구금과정에서 고문, 구타, 협박 등의 처우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때 선생님은 이미 지나간 일들이니 지금 다 들춰 놓는다는게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남북화해라든가 협력문제가



제기되는 마당에서 과거 탄압받았던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게 떠올랐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아무리 지적으로 단련된 사람이라도 동물적인 처우를 받으면 10일 못가서 그사람도 동물화 된다”는 간단한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선생님은 감옥 안에서 많은 죽음과 전향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생활속에서 선생님이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준 또 다른 힘은 동지애였다.

밥도 넘기지 못하는 큰 병을 앓는 동지 옆에서 밥알을 씹어 짓이겨 밥물을 만들어 넘겨주던 동지에, 혹시 교도관에게 들키는 날이면 된고문을 받을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기어코 비타민제를 병기통 사이 구멍을 통해 몰래 건네주던 동지에.

연약한 듯하나 강철새이로 돌는 그 부드러운 싹들이 없었다면, 황량하고 삭막한 감옥생활의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틸수 있었을까.

“감옥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40대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인혁당 동지들이 사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50대가 되면서는 그 분노가 조금은 둔감해졌습니다. 탄압의 한계성을 믿게 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고 해야할까. 그리고 60대가 되자 또 생각이 변하더군요. 그 전 시대를 잊어버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협력, 화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 생각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대가 되었는데... 오랜 독방생활로 아집이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친구가 적어지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겨나는 이타심의 반작용으로 생기는 타인에 대한 아쉬움같은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데... 출소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유대관계가 짙게 형

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요. 처자식과 떨어져 살아가도 요즘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단지 내가 남을 도울수 없는 것이 근심이라면 근심이랄까. 제가 말하는 동안 군말이 많지요? 나이 먹었다는 징줍니다.” 두서너해 전부터 ‘그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를 기억해 내려고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 癩 보고 ‘나도 늙었는가’ 하는 생각에 ‘건망증 퇴치’라는 제목의 노트를 만들고는 기록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우용각 선생님.

계속되는 전향 공작에 대해 ‘마음에 없어 쓰기 싫습니다. 당신 같으면 마음에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전향을 거부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간은 왜 존엄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오랜 독방생활로 언어장애가 생길까 두려워 혼자말로 중얼거려 보기도 하고 책을 입 안에서 혀를 굴려 소리 나지 않게 읽는 노력을 하며, 41년동안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해오신 우용각 선생님이 끝내 버리지 않은 생각은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믿음과 구타와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 무자비한 고문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낙천적 신념이었다.

혹시라도 감옥에 묻혀버린 청춘이 후회되는 적은 없었냐는 질문에 선생님의 답은 간명했으나 울림이 컸다.

“후회한 적 없습니다. 뭐이냐면 새로운 세기를 이루려는 이 세기를 나 나름의 신념을 지키며 살았다는 자부심, 통일에 헌신을 하고 살았다는 자부심 때문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을 안정되게 모셨습니다

통일조국의 염원을 안고 오랜 고초에도 양심을 지켜오신 비전향 장기구금 양심수 19명이 2. 25사면조치로 조건 없이 풀려났습니다. 조상록(22년복역), 강용주(15년복역)님을 빼고는 고향이 복역이거나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북에 있게 되어 사실상 남쪽에 직계 가족이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가족, 친척이 있다 해도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어 함께 생활하기엔 불편한 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듯 무연고이거나 함께 지내기 어려운 선생님들을 모시는 일이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하여 출소한 선생님들과 각 지역에 뜻 있는 분들 사이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29년에서 41년까지 분단 조국의 아픈 상처를 대신 앓아 오셨던 이 분들을 뒤늦게라도 편안하게 모시는 일은 이 분들의 석방운동과 후원을 해왔던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7명 가운데 4명은 가족이 모시게 되었고 13명은 서울, 광주, 대구에서 아래 그림 표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연고이거나 공동체로 함께 계실 분

성명(나이)	본적지	복역(년)	출감교도소	계실 곳	비 고
우용각(71)	평북 영변	41	대전	갈현동 '만남의집'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1-38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박완규(70)	충북 청원	32	대전	갈현동 '만남의집'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1-38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김익진(70)	경북 영덕	31	대전	갈현동 '만남의집'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1-38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장병락(66)	강원 원산	38	대전	갈현동 '만남의집'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1-38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양정호(69)	경남 양산	30	대전	갈현동 '만남의집'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1-38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안영기(71)	경북 선산	37	대전	민중탕제원(02-969-8726) 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 797-2	민중탕제원
양희철(66)	전북 장수	37	광주	민중탕제원(02-969-8726) 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 797-2	민중탕제원
김동기(68)	함북 김책	34	광주	광주 '통일의집' 임시연락(016-626-55024)광주시북구두암2동 29-25	광주양심수대책위
이공순(66)	충남 서천	33	광주	광주 '통일의집' 임시연락(016-626-55024)광주시북구두암2동 29-25	광주양심수대책위
리경찬(65)	경기 장흥	34	광주	광주 '통일의집' 임시연락(016-626-55024)광주시북구두암2동 29-25	광주양심수대책위
이재룡(56)	강원 양양	29	광주	광주 '통일의집' 임시연락(016-626-55024)광주시북구두암2동 29-25	광주양심수대책위
김창원(66)	서울	30	전주	대구 '만남의집'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141-5(11통5반)	대경지구양심수후원회
최선복(72)	경기 강화	37	대전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산 21 '적오산농장' (042-864-3050)	주인유재호
최수일(61)	평북 의주	34	광주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산 2-1 '적오산농장' (042-864-3050)	주인유재호

가족이 모신 선생님들

성명(나이)	본적지	복역(년)	출감교도소	계실 곳	비 고
홍명기(71)	충남 부여	37	대구	서울 마포구 성산1동 111-3 대우빌라 304호	누이동생집
오형식(68)	서울	31	대구	서울송파구방이동105-10호	동생
김은환(70)	경기 광주	30	대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 1동 1142번지 (임시)	동생, 조카

양심수 후원회에서 마련한 갈현동 '만남의 집'에는 위
[표1]에 있듯이 우용각, 박완규, 김익진, 장병락, 양정호 선
생님이 함께 생활하시게 되며, 출소후 낙성대 '만남의 집'
에 계셨다가 3월 12일 이사를 하셨습니다.

안영기, 양희철 선생님은 제기동 '민중탕제원'에서 이
두균, 임방규, 권낙기 선생님들과 새 공동체를 함께 하시
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새로 머물 곳을 마련키로 하였고
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최순석, 장두석, 김양무 선생님등 양
심수 대책위 여러분이 새집을 마련하여 3월 4일 김동기,
이공순, 이경찬, 이재룡 선생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전주에서 나오신 김창원 선생님등은 대구 '만남의 집'
에 김중호 선생님과 함께 계시기로 하여 출소하시던 날,
박봉현 선생님이 모셔다 드렸습니다.

대전과 광주에서 출소하신 최선목, 최수일 선생님은 복
역중 후원을 해주셨던 강석봉 치과원장의 주선으로 '적오
산농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3월 산행

봄맞으러 북한산으로 갑니다.
별도 따뜻해지고 하늘도 맑아지는 봄 날,
나름이 그려워지는 날,
함께 북한산에 오릅니다.

- 언 제 : 3월 21일(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 어디로 : 북한산비봉
- 모이는 곳 :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가매포소
- 준비할 것 : 맛있는 도시락, 회비 3천원

선생님들이 가족과 함께 계시든, 여러 공동체에서 계시
든, 언제나 건강하시어 선생님들이 염원해 오신 일이 이
루어지고 고향과 가족이 있는 곳에 하루바삐 가실 수 있
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출소장기수 '머물 곳' 마련 모금

회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노력과 헌신으로 비전향장
기구금 양심수들을 풀려나게 했습니다. 1989년 양심수
후원회 발족과 함께 그분들의 석방을 촉구해 왔으며, 처
음으로 영치금과 편지를 보내고 면회를 하면서 결연을
맺어 왔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공안사범으로 분류 돼 있
었던 260명 가운데 손성모, 신광수 두 선생님을 남기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앞으로는 여전히 간헐있는 양심수 전원석방 운동과
후원활동을 하는 한편, 오랜 구금에서 풀려나신 연고가
없는 분들을 편안히 모시는 일은 후원회의 또 다른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현동 '만남의 집'을 새로 마련하
여 다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호에 알렸듯이 머물 곳 마련모금을 4월말까지 한시적으
로 합니다. 집마련(전세)에도 3천만원이 필요하며, 그 밖
에도 새 살림에 필요한 책장, 장롱 등 생활용구를 마련해
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 기다립니다. 아
울러 새로 마련한 만남의 집 일손이 되어 주실 분을 기다
립니다.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능력과 조건에 맞는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집마련 성금은 제일은행 159-55-001877 권오현

살림도구 등 문의전화는 763-2606 (사무실)

017-260-3333 (권오현)

봄하늘에 외쳐본다. “정치수배자에게 자유를 다오”

오창규

안녕하십니까. 저는 93년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자 남총련 의장이었던 오창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이른바 학생운동관련 최장기 수배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계사 정치수배해제 농성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한 우리 현대사에서 청년학생들은 민주와 통일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과정은 필연적으로 청년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동반하였습니다.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정법 위반이 되어 잡히면 양심수가 되고 도피하면 정치수배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7년여의 수배생활은 상실과 박탈의 연속이었고 그것을 거부하기위한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무엇보다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람에 대한 타는 그림움을 가슴에 묻고 기약없는 도피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긴장된 상태로 검거에 대비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의 지속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남모르는 마음 고생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의리를 지키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걸 알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걸어가는 심경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문수학했던 친구들이 졸업하여 취직하고 결혼하여 이제 그 2세들이 재롱피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타향땅에서 무수히 변해가는 계절의 변화마다 흐르는 세월의 안타까움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녕 우리가 죄인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같은 대역죄인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사면에 복권까지 되어서 정치를 재개한답시고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독단을 일삼고 경제를 파탄낸 김영삼도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을 바쳐 역사를 바로세워보고자 했던 우리같은 정치수배자들에게 준법서약서나 한총련 탈퇴서는 다 무엇이고 선별 구속은 또 무어란 말입니까.

계절이 바뀌어 또다시 봄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성중에 네 번째 계절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8월 9일 한여름의 땀방울을 머리에 이고 들어올때만 하더라도 금방 끝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88년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도 93년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집권 첫째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헌데 3.13 특사에 이어서 8.15특사 때도 그러한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추석에는 집에 가자’며 애써 희망을 가져 보았습니다. 연말에는 해결되리라 확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고 나서 도 해결에 기미가 묘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8개월째 농성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양심과 지조를 버리고 쉽게 일신의 자유를 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치수배자들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속이 새까맣게 타버렸답니다. 저희가 바라는 그 자유라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명예로운 자유를 회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당하게 부모님과 옛동지들 그리고 후배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을 쓴 오창규(33세)씨는 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7년째 수배중이며 현재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을 이끌고 있다. 이글은 지난 3월 11일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오씨의 어머니 김평님님께서 대독하셨다.

- 2 — 민가협 회원들, 의정부 교도소 방문, 양심수에 대한 부당행위 항의하고 김동석 학생면회
- 3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첫날. 서울역앞에서 민가협, 수가협, 양군모 청년학생들 70여명 함께.
 - 민가협, 수가협 대표단, 국민회의 이기문 인권위원장, 한나라당, 자민련 당사 방문.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해제 촉구
 - 경찰청, 경남 함양경찰서가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책임을 물어 최현태 함양경찰서장을 면직조치
- 4 — 민가협 266회 목요집회. 3공, 5공, 6공 군사독재정권하 구속자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조상록(일본유학생, 78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22년제 수감중)씨 누님 사례 발표, 강용주(85년 구미유학생 사건 구속)씨 편지낭독, 최호경(92년 민애전 사건 구속, 무기형)씨 부인이 쓴 편지 낭독, 손성모(71세, 82년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무기형)씨가 보낸 편지 낭독. 가극단 금강이 좋은 노래로 함께하다.
- 5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 검찰청, 전국 경찰서 대상으로 족쇄 비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경찰서에 족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폐기조치 하기로 했다고 발표
- 6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제1차 인권대회' (종묘공원) 참석,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
 - 천장연 장기수가족후원회 제7차 총회(과천 시민회관) 참석.
- 7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제8기 정기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열어 상임의장에 오종렬 광주전남연합 의장을, 공동의장에 홍근수 평통사 대표, 노수희 전국노점상연합 대표를 선출. 8월 범민족대회 성사, 남북해의 3자연대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선언(동국대 중강당)
- 8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 양심수후원회 긴급운영위원회. 3·1절 사면으로 석방이 예상되는 비전향 장기수 무연고 선생님을 위한 제2의 만남의 집 마련에 대한 대책 협의
 - 유엔인권이사회,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가 89년 전민련 출범식에서 결의문을 낭독배포했다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93년 10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로 처벌한 것은 B규약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해왔음이 밝혀짐.
- 9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 서울대 자연대 '99년 겨울 자연대 교양강연회' 참석하여 권오현 회장 강연
 - 민가협, '사면·복권 신고센터' 개설하여 접수받은 사면·복권 대상자 782명 명단을 청와대, 국민회의, 법무부에 보내 사면·복권 촉구
 - 정부여당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되 법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하고 인사와 예산, 업무를 국가나 정부기관이 인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독립성을 확보하게 했다고 발표.
 - 김수환 추기경, 양심수 대폭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 청와대로 발송
- 10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 국제사면위원회, 오는 3월부터 석달동안 국가보안법 개정, 노동권 보장 등 한국의 인권개선 추구를 위한 캠페인 벌이기로.
- 11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종교단체 등 14개단체,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톨릭 회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주최로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방해하는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가톨릭 회관)
 - 민가협 설날특집 목요집회(267회). 민경우(97년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 3년6월)씨 부인이 남편에게 보내는 편

- 지방독, 이은미(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씨가 딸 해솔에게 보낸 편지를 아버지가 낭독,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4년째 수배생활)씨 시를 친구가 낭독. 조국과 청춘이 함께 함, 한양대, 단국대 풍물패가 길놀이함.
-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초청 인권기구 설치문제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여의도 '여백'에서 갖다.
- 12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 13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 제2 만남의 집, 갈현동에 계약하다.
-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부장 진형구), 2월부터 각 대학 총학생회장 앞으로 제7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탈퇴 권유문을 보내 "금년 3월말까지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 가입죄로 검거,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을 밝힘.
- 15 —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정의찬 학생(97년 남총련 의장) 면회하고 윤영준, 김철용 학생에게 영치금 넣어줌
- 17 — 낙성대, 봉천동 '만남의 집' 선생님들께 설세배. 이정태, 변의숙, 함정희 씨 함께 하다.
- 여의도 유가협 농성단, 조계사 농성단, 명동 한총련 농성단 방문, 격려.
- 이해찬 교육부장관, 대학 신입생에게 학생우등을 삼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음
- 18 — 민가협 268회 목요집회. 강용주씨 어머니 사례발표, 권순욱(건국대생, 97년 구속, 3년형)씨 어머니 석방호소, 안중언(98년 광운대 총학생회장)어머니 석방호소. 동부문화센터 '노래로 크는 나무' (98년 시민가요제 대상 수상)가 좋은 노래로 함께 함. 산업대 학생들의 울동.
- 민가협 회원들, 이해찬 교육부장관 방문, 편지문제 강력 항의.
- 19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인권법 공추위, 여의도 국민회의의 당사앞에서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및 무원칙한 국민회의의 자세 비판 집회' 열다.
- 20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 21 — 양심수후원회 2월 산행. 2살박이 다인이부터 79세 이세균 선생님까지 20명이 함께 우이동에서 출발, 우이능선, 원통사, 우이봉을 올랐다가 우이동으로 내려옴.
- 민권공대위 주최,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대회 열다(서울역 광장)
- 22 — 박상천 법무부장관,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 복권조치 발표. 우용각 선생 등 29년 이상 복역 17명과 조상록 강용주 씨 등 19명은 준법서약 없이 석방하고 장강호씨등 20명등 가석방조치, 최호경 씨 등 4명 감형조치.
- 민가협,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서울역 광장).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집회로 열다.
- '대학 신입생에 보내는 글'에 대한 민가협의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교육부장관 앞으로 발송하다.
- 23 —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해 토론회' (조계사 문화관)
- 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창화(단국대) 학생 등 양심수 단식과 관련, 민가협 김정숙 상임의장과 회원들, 진주교도소 방문. 교도소측의 면회거부에 강력 항의.
-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남한의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앞으로 전쟁포로로서 원적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 등 3명과 2·25 사면으로 풀려날 비전향 장기수 17명을 '본인 의사와 가족들, 그리고 내외 여론에 따라 아무 조건없이 가족품으로 돌려 보낼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전해 왔다고 정부당국이 발표.
- 대법원은 사법연수와 28기생 신규임용 인사에서 법관을 지원한 77명 가운데 원창현, 황아무개, 유아무개 등 3명을 시국사건과 관련 구속전력을 이유로 탈락시킴.
- 24 —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의 비전향 장기수 송환요구에 대해 송환문제를 위한 남북한 공정한 대화가 있길 바란다'며 일방적 송환에 회의적 의사표시. 25 — 정부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8812명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감형, 복권조치를 하다. 우용각 노인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과 민애전 사건의 장

창호 씨 등 20명의 양심수가 대전, 광주, 대구, 안동, 전주 등 전국 교도소에서 민가협 등 사회단체의 환영을 받으며 출소.

- 민가협 269회 목요집회. 2·25 사면에서 제외된 200여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집회로 안재구(94년 국가보안법 구속, 전 경희대 강사, 20년형)씨 부인 사례발표, 민경우씨 부인 사례발표, 수배자 가족 대표로 오창규(92년 남총련 의장, 최장기수배자)씨 어머니 호소에 이어 조국과 청춘이 함께 함.
- 대검공안부(부장 진형구),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화하여 노동계 현안 등 정부내 의견 조율 하는 등 공식기구로 만들 방침을 밝히다.
- 27 — 무연고 출소 장기수 12분과 낙성대 만남의 집 생활지원금 드림.
- 양심수 196명에게 영치금 보냄

제 14차 민가협 정기 총회

양심수 석방과 이 땅의 인권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민가협이 14차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98년 한해는 민가협의 끈질긴 석방운동의 결과로 17명의 초장기수와 조상록, 강용주씨의 조건없는 석방을 이뤄낸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함께 나누고 아직도 간혀 있는 200여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과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또한 2월 25일 석방된 양심수들의 환영식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일시 : 1999. 3. 31(수) 오후 2시

• 장소 : 추후 공고

※ 양심수후원회 총회는 4월말경 열 예정입니다.

회원소식

- 2월 25일 석방된 분들이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그동안의 후원에 깊이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서경순 어머니(민가협 전 상임의장) 아들 이창규 군이 3월 13일(토) 2시, 동국대 문화관 그릴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움시롱 감시롱은 제2 만남의 집 모금에 1,000,000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한결같은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8·15 특사로 풀려난 함주명(68세)씨를 아십니까. 그는 16년만에 아내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는 16년을 한복 샅바느질을 하며 영어의 몸이 된 남편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해온 아내에게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간 고생해온 아내에게 '사람 노릇'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아내의 배움을 받으며 일터로 가고, 월말이면 아내에게 월급봉투를 주고 싶은 소박한 꿈 말입니다. 마음은 아직 오십인데 세상의 나이는 예순을 훌쩍 넘어버린 그에게 일자리를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활정보지를 뒤적이며 혹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남영동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할 때도 아무런 죄없이 16년을 감옥살이 할 때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일이 없다는 그는 그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던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실 분 없으십니까. 연락주십시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김만섭(서울시 노랑진동)	최희석(광주시 월곡1동)
심민아(제주시 일도2동)	서민갑(서울시 불광3동)
남택규(서울시 시흥동)	이윤아(인천시 산곡4동)
이향나(서울시 방학동)	문현숙(서울시 공덕동)
한규희(서울시 양재2동)	권혜경(군산시 서흥남동)
이응복(서울시 동소문4가)	